군산 강소특구 친환경차 특화 속도낸다

새만금컨벤션센터서 사업설명회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2년차
기술이전 사업화 등 63억원 투입

최근 열린 '2022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산시가 최근 '2022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를 갖고 특구 육성사업 소개와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산학융합원 등 혁신기관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기술창업 육성,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과 특화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소개했으며, 부스운영을 통한 지원사업 수요 파악 및 기업애로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2020년 7월에 지정받았으며, 국비 160억원과 지방비 62억원을 투입해 유망 공공기술 발굴과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 특화성장 지원사업 등 특화분야 중심의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사업 2년차를 맞은 군산 강소특구는 올해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혁신 네트워크 운영 ▲특화개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화개별 지원사업으로 ▲점프-업 성장지원(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지원) ▲테크-업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지원) ▲밸류-업 컨설팅 지원(기술·기획·경영 컨설팅)이 이뤄진다.

또 전기차 클러스터 수요-공급 기업 간 컨소시엄에 상생협력형 사업화를 지원해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산학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특화분야 혁신정책과 기술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회를 연 10회 운영하고, 특화분야 기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보교류, 기술특강, 전시회 참관, 벤치마킹 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연구회를 연 8회 운영해 혁신 주체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화개별 지원사업 중 매출연계형 시제품 제작과 아이디어형 신제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테크-업 기술지원 사업'은 6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이호 군산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은 "전북 군산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기술중심의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행석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정보공유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소특구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하고 투자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6월3일까지 일제 정리기간
67억원 20% 이상 징수 목표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6월3일까지다.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66억9400만원(일반회계)으로 시는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및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 중앙시장에 '청년몰' 조성…8월 개장

맛집·서비스 시설 등 17개 점포

익산 중앙시장에 복합 청년몰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을 리모델링해 8월 개장한다고 밝혔다.

복합 청년몰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놀이공간, 상인과 고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조감도〉

총면적 952㎡ 규모로 1층에는 8개의 특색 있는 맛집 점포, 2층에는 9개의 서비스업 시설 등 총 17개 점포가 들어선다.

시는 최근 예비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청년 상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상인 육성재단을 통한 필수적인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특색있는 점포 구성과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청년몰을 조성해 전통시장을 젊음과 상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오늘부터
버스정류장 흡연 과태료 부과

남원시가 16일부터는 금연지도원 등을 활용해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15일 관내 버스정류소 6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버스정류소 흡연행위 적발 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남원시 금역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승강장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금연유도로 시민의 건강 증진하기 위함이다.

시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현수막 및 LED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내 홍보 ▲생활정보지 ▲시홈페이지 게시 ▲안내 표지판 스티커 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 대한 금연운동 효과도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쾌적한 금연구역 지정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원예작물 바이러스도 진단키트로 조기 방제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고추·토마토 재배 농가 도움

순창군이 고추나 토마토 등에 발생한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운영하는 등 조기 방제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고추와 토마토 등에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은 방제 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발생 때 병주(바이러스병 발생주)를 제거해야만 정상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수확량이나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조기 발견이 중요해지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바이러스 진단키트 13종, 181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키트는 작물 즙액 3~4방울만으로도 현장에서 즉시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장 진단키트를 4년째 활용하고 있으며 양성이 나오면 환경관리, 진딧물과 총채벌레 방제 등을 농업인에게 지도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기환경 안전

고창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측정 결과 주변 대기 환경이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25t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스토커방식으로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다이옥신 연속시료 분석과 다이옥신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5일 다이옥신과 벤조피렌을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유로핀즈'의 주도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다이옥신(기준 5)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벤조(a)피렌(기준 0.05)은 기준치의 1/1000 수준인 0.00004mg/S㎥가 검출, 소각시설 주변 대기환경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수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 다이옥신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